



즉시 배포용: 2019년 7월 3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학자금 대출 이용자에게 중대한 소비자 보호를 제공하는 새로운 규제를 제안한다고 발표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는 학자금 대부 업계의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포함해 새로운 규제를 제안

제안된 규제는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이 적용되는 대상이며, 이후 금융서비스부(DFS)가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 규제안 시행

학자금 대부업자는 반드시 전국 주정부 면허 시스템(Nationwide Multistate Licensing System, NMLS)을 통해 면허 신청서를 접수해야 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의 학자금 대출 이용자를 위한 중대한 소비자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규제를 제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규제에 따라, 뉴욕 주민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을 진행하는 업체는 학자금 대부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안 규정은 2019년 7월 31일 뉴욕주 등록부(State Register)에 공고 후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시행하게 됩니다.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는 모든 의견을 검토하고 최종 규제를 시행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행정부가 심각해져가는 학자금 대출의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는 가운데, 뉴욕주가 대출자 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학자금 대부 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대출자가 교육 비용을 마련할 때 정확한 정보에 입각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규제안에 따라, 학자금 대부업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수수료와 결제 기한, 대출 약관에 대한 분명하고 완전한 정보 제공.
- 대부업자의 수수료를 높이는 조건이 아니라, 대출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조건으로 대출.
- 소득 기반 상환 및 채무 면제 옵션에 대해 대출자에게 고지.
- 계좌의 상세 내역을 보관하고 소비자에게 제공.

- 대출자의 채무가 신규 대부업자에게 이관되었을 경우, 모든 필요한 정보가 채무와 함께 이관되어 대출자의 상황이 영향받지 않도록 함.
- 신용 평가 기관에 정확한 정보 제공.
- 고객 불만 사항에 대한 빠르고 실질적인 대응.

오늘 발표된 규제안은 또한 대부업자가 대출자를 기만 또는 오도하거나, 모든 종류의 불공적이고 기만적이며 악랄하고 약탈적인 행동이나 행위에 말려들게 하거나, 대출자의 상황을 오용하는 것 등을 금지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모든 뉴욕 주민이 고품질 교육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위기는 현실적 문제입니다. 재정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항상 최우선 사항입니다. 새로운 규제는 뉴욕주 전역에서 수백만 명의 학자금 대출 이용자들에게 확대된 보호를 제공할 것입니다."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의 Linda Lacewell 감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는 200만 명이 넘는 학자금 대출 이용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엄청난 빚을 지고 있으며, 교육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학자금 대부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규제 시스템을 통해 뉴욕의 학생과 가족, 그들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상원 소비자 위원회(Consumer of Affairs Committee)의 위원장인 Kevin Thomas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저의 커리어를 통틀어, 저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는 학생들이 약탈적 대출업자에게 희생당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학자금 대부업체 법의 제정은 학자금 대출 이용자들을 위해 꼭 필요했던 소비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일에서 커다란 진전을 의미합니다."

상원 은행 위원회(Banks Committee)의 위원장인 James Sanders J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소비자 대출 보호 제안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배움을 계속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일부 대부업자들이 대출자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원 소비자 위원회(Consumer Affairs Committee) 위원장인 Michael DenDekke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자금 대부 산업은 단지 교육을 받으려 했던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든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학자금 대부 산업을 강력히 규제하여 변화를 선도한 Cuomo 주지사 및 금융서비스부(DFS)에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은 이제 기타 선도적인 진보 성향의 주와 함께 학자금 대출 이용자들에게 필수적인 소비자 보호를 제공할 것입니다."

하원 은행 위원회(Banks Committee)의 위원장인 **Kenneth P. Zebrowski**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만적이고 소비자를 오도하는 전략은 이미 심각한 수준인 학자금 채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호 조치는 학생들이 공정하고 신의 있는 대우를 받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학자금 대부업자는 반드시 안전한 웹 기반의 전국 면허 시스템인 전국 주정부 면허 시스템(NMLS)을 통해 면허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면허 신청은 전국 주정부 면허 시스템(NMLS) 웹사이트에서 2019년 8월 1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면허 절차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금융서비스부\(DFS\)의 학자금 대부업자 면허 자료\(Student Loan Servicer Licensing Resources\)](#)를 방문해주십시오.

규제안의 사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